陳士鐸의 生涯와 著述에 대한 연구

朴基兌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關于陳士鐸生崖及著述的研究

朴基兌·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陳士鐸大約生活在1627年至1707年之間, 享年八十餘歲. 六十歲過后, 分別于1687年和1693年, 先后兩次到北京見到天師和仲景使君, 傳得醫學知識, 幷著述了二十多卷醫書.

陳士鐸所著叢書名爲『洞垣全書』, 現存著作有『外經微言』、『脈訣闡微』、『本草新編』、『石室秘錄』、『辨證玉函』、『辨證奇聞』、『辨證錄』、『洞天奧旨』等八部。傳說陳士鐸的醫術授傳于岐伯、張機、呂道人(呂洞賓)等人, 從其著作中, 無一例外地都標有"述"及"敬習"等字樣來看, 其書絶非自著, 而受他人之授無疑。中國的諸多學者認爲傅山(字青主)是給陳士鐸傳授醫術的導師, 可是傅青主已于1684年過世, 而陳氏遇見兩先師是在1687年, 所以傅山絶非是傳授之人. 在陳士鐸的著作中, 可見到幾處傅山著書的內容, 從此可推測傅山的醫學導師與陳士鐸的醫學導師, 也許是同一個人, 或者是一個有關連的人. 『辨證奇聞』與『辨證錄』僅在文章的篇幅上有所差異外, 其內容是相同的. 因此, 有『辨證奇聞』是陳士鐸的原著, 而『辨證錄』是后人增補的著作之說; 還有『辨證錄』是陳氏的原著, 而『辨證奇聞』是錢松的刪定本之說. 但是從『辨證錄』的序文與『洞天奧旨』的序文來看, 可推斷兩者均爲陳氏所著, 且『辨證奇聞』所著時間早于『辨證錄』. 現存的陳氏著作中, 從其所著時間的先后順序來說, 大致是『石室秘錄』最早見世, 其次分別爲『辨證奇聞』、『辨證錄』、『辨證玉函』、『洞天奧旨』、『脈訣闡微』、『本草新編』、『外科微言』等. 現存陳氏所自著序有『辨證錄』、『洞天奧旨』、『鬼眞君脈訣』等三部, 而實際上『辨證錄』的序好似是『辨證奇聞』的序.

關鍵詞 : 陳士鐸, 『洞垣全書』, 『辨證奇聞』, 『辨證錄』.

Ⅰ. 緖 論

陳士鐸은 淸初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一生동안 많은 著述을 하였지만 그의 生涯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사승관계도 대단히 신비한 인물이다. 그는 家學을 계승한 基礎위에 名醫와 民間의 治療經驗을 널리 찾아다니고 求하였으며, 오랜 臨床經驗을 통하여 남다른 風格을 가진 學術思想을 形成하게 되었다.

그의 著作에 나타난 創新의 思想은 後世學者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가장 讚揚하는 部分이다. 비록 陳士鐸의 現存하는 著作이 여덟 가지 밖에 되지 않지만 그 著書들에 대하여 整理 및 硏究를 해 보면 여전히 그의 學術思想이 體系的이고 一貫性이 있음을 分明하게 알 수가 있다.

그의 著書들은 지금도 後世醫家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으며 그가 주장한 醫學理論들은 後世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生涯에 대한 不明瞭와 著述에 얽힌 신비로 인해 그의 生涯와 醫學저작에 대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資料의 缺乏도 그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그러나 그의 著書속에 나타난 위대한 임상적 가치와 醫學이론의 독창성은 결코 그에 대한 연구를 방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자료와 그의 著書속에 있는 내용을 綜合하고 고찰하여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著述을 연구 보고하는 바이다.

Ⅱ. 陳士鐸의 生涯와 著述

陳士鐸의 生涯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서적이 없고 단지 그가 쓴 著書들에 있는 序文과 凡例, 자손들이 쓴 跋文등을 참고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의 자작序文은 鬼眞君脈訣序, 辨證錄自序, 洞天奧旨序가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그는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市)사람으로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이며 別號는 朱華子 또는 蓮公이라 불렀으며 자신의 書齋를 大雅堂이라 하여 大雅堂主人(辨證錄 凡例)이라고도 했고 남들은 遠翁(洞天奧旨 陶式玉序)이라고도 불렀다.

辨證錄 凡例에서 "鐸年過六旬에 精神衰邁하야 二師傳鐸之言을 愧難强記라 恐至遺忘하고 辨論之處에 或多未備하노니 尤望同人之敎鐸也하노라(나 陳士鐸의 나이 60을 지남에 정신이 나약해져서 두 스승이 나에게 전한 말씀을 힘써 기억하는 것이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였다. 빠트리거나 잊어버리고 변론한 곳에 더러 미비한 것이 많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니 더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노라. 邁 늙을 매. 衰邁 늙어서 무능해짐. 늙어서 쓸모가 없어짐)"[1]라고 하였다. 二師가 陳士鐸에게 의술을 전해준 시기는 辨證錄 自序에서 丁卯秋라고 하였는데 이는 康熙 26年, 서기 1687년이 된다. 이로부터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明 天啓 7年이 되는데 서기 1627년이 된다. 이것은 過六旬을 60세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만약 이때 60세를 지났다면 그의 출생년도는 1627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627년은 그가 태어난 해의 하한선이 된다.

淸 嘉慶 8年(1803년) 山陰縣志 卷80 術藝에서는 陳士鐸에 대해 "邑諸生. 治病多奇中, 醫藥不受人謝. 年八十餘卒. 所著有『內經素問尙論』, 『靈樞新編』, 『外經微言』, 『本草新編』, 『臟腑精鑒』, 『脈訣闡微』, 『石室秘錄』六卷, 『辨證錄』, 『辨證玉函』, 『六氣新編』, 『外科洞天奧旨』, 『傷寒四條辨』, 『嬰孺證治』, 『傷風指迷』, 『歷代醫史』, 『濟世新方』, 『瓊笈秘錄』, 『黃庭經注』, 『梅花易數』等書行世."[2]라 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그는 어려서 縣試에 合格하여 諸生으로 공부할 때부터 醫學에 조예가 깊어 병을 잘 치료하였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베풀어 주었어도 사례를 받지 않는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80여 세가 되어 卒하였다 하였으니 1627년부터 계산하여 1707년 이후에 세상을 떠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先祖에 대해 살펴보면 『辨證玉函』의 王之策의 序文에 "陳子爲於越世胄로 幼抱匡濟하야 恒以公輔自命하고 人亦無不以公輔期之라. 齎志未售어늘 間留心於經世之學하고 當途者殷勤徵聘하야

1)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16.
2)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4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爭欲延致라(陳士鐸은 山陰의 큰 벼슬을 했던 집안의 후손으로 어려서 널리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어 항상 三公四輔의 벼슬로 자처를 했고 사람들도 三公四輔를 기대해 마지않았다. 큰 뜻을 품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자 간간히 경세지학에 마음을 두었고 부귀한 자들이 은근히 불러 다투어 그를 맞이하려고 하였다. 當途者: 권력을 잡을 사람.)"라 하였고 『辨證錄·凡例』에 "祖父素好方術하야 遺有家傳秘本하니 凡闢合各症者 盡行採入하야 以成異書라.(할아버지가 평소에 방술을 좋아하여 전해오는 가전비본이 있었는데 각 증상과 관련되고 합치되는 것들은 다 채록하여 異書를 완성했다.)"라 하였으며 『洞天奧旨·凡例』에 "先大夫安期公은 生平頗好方術이러니 遊蜀遇峨眉山羽士하야 傳有秘方하니 効驗如響하야 亦登此編이라(돌아가신 아버지 安期公께서 평생 동안 醫學을 좋아하셨더니 사천성을 여행하다가 아미산 도사를 만나 비방을 전수받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 또한 이 洞天奧旨에 함께 싣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그의 선대는 山陰의 명문대가로 할아버지가 의술을 좋아해서 많은 의방서를 자손에게 남겨주었고 아버지 陳安期도 평생 의술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陳士鐸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醫學에 뜻을 둔 것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家風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曾孫子 陳鳳輝가 乾隆 庚戌(1790년)에 쓴 『洞天奧旨』 跋文을 보면 "曾祖遠公은 自少習擧業이나 以數奇하야 屢試輒蹶이라(증조할아버지 원공은 어려서부터 과거공부를 했으나 운수가 좋지 못하여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數奇:운수가 좋지 않다)"라 하였다. 이로 보면 그는 어려서 과거공부에 매진을 했고 여러 번 낙방하여 公輔가 되는 꿈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天性的으로 遊歷을 좋아하여 젊은 시절 수많은 곳을 여행하였다. 『辨證錄·凡例』에 "鐸壯遊五岳(나 陳士鐸은 젊었을 때 오악을 여행하였다.)"라 했고 『本草新編·凡例』에서는 "鐸少喜浪遊하야 凡遇名山勝之면 往往探奇不倦이라(나는 어려서부터 유랑하기를 좋아하여 명산승지를 만나면 항상 기이한 것을 찾아 싫어하지 아니하였다)"라 했으며 『辨證玉函』의 王之策 序文에서는 "後因遠陟蒼梧하고 雅慕獨秀棲霞諸勝하야 遍歷幽隱이라(뒤에 과거에 낙방함으로 인해 멀리 창오에 올랐고 獨秀山과 棲霞山의 승지를 평소에 사모하여 幽隱한 곳을 두루 돌아다녔다. 蒼梧는 지금의 廣西 梧州市. 獨秀는 廣西 桂林市에 있는 獨秀峰. 棲霞는 浙江省 杭縣 서북쪽과 강소성 남경시 동북 20km 지점에 있는 棲霞洞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며 이어서 "陳子隨有鉅鹿之游(陳士鐸이 이어서 하북성 形台地區에 있는 鉅鹿을 여행했다.)"라 하였다.

晩年에 陳士鐸은 선후로 2번 북경을 갔다. 첫 번째는 康熙 26년 丁卯(1687년)이고 두 번째는 康熙 32년 癸酉(1693년)이다. 『辨證錄』 自序에서 "丁酉秋에 余客燕市"라 하였고, 王之策의 『辨證玉函』 序에 陳士鐸이 康熙 32년(1693년)에 秋試(가을에 시행하는 鄕試) 때문에 入省하였다가 『洞天奧旨·自序』에 "癸酉冬再遊燕市"라 한 것처럼 그해 겨울 다시 燕市로 유람을 떠난다. 燕市란 燕京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의 北京이다. 그는 北京에서 二老人의 가르침을 5개월여 동안 받고서 의서의 집필을 시작하는데 『辨證錄·凡例』에서는 이 두 노인이 岐伯天師와 仲景張使君이라고 밝히고 있다. 辨證錄의 序文에서는 이들이 5개월 뒤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本草新編』의 1687년에서 2년 뒤인 1689년에 쓴 呂道人岩, 長沙守張機, 雲中逸老岐伯天師의 3개 序文을 보면 그 후에도 이들과 지속적으로 交流를 한 것 같으며 張機의 序文을 보면 1687년에 北京에서 陳士鐸을 방문한 사람이 이들 3인으로 되어있다. 岐伯은 黃帝內經에 나오는 황제의 스승이고 張機는 後漢시대 傷寒論의 저자이며 呂岩은 여동빈으로 당나라 때 사람으로 신선이 되었다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醫學을 전수했다는 것은 荒誕하다고 하여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陳士鐸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신의 著述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이들을 假託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陳士鐸이 假託한 실제의 주인공은 당시 太原에 살았던 傅青主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는 陳士鐸의 生涯와 著書,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싣고 있는 『紹興醫學史略』에 있는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陳士鐸의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이다. 淸나라 山陰(지금의 紹興)사람으로 縣의 諸生으로 있었다. 뒤에 醫學을 직업으로 했으며 병을 치료함에 특이하게 적중함이 많았으나 사람들의 사례를 받지 않았다. 또 著書하기를 좋아하여 저작한 것이 아주 많은데 浙江省 醫家들 중에서 두드러진 자이다. 향년 80여세를 살았는데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의 책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즉 1.『內經素問新編』, 2.『靈樞新編』, 3.『尙論新編』, 4.『外經微旨』, 5.『臟腑精覽』, 6.『脈訣闡微』, 7.『玉函辨證錄』, 8.『六氣新編』, 9.『傷寒四條辨』, 10.『治傷指迷』, 11.『嬰幼證治』, 12.『濟世新方』, 13.『琉笈秘錄』, 14.『歷代醫史』, 15.『黃庭經注』, 16.『石室秘錄』유행이 아주 넓다, 17.『洞天奧旨』6권, 18.『辨證冰鑒』12권(현재 절강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19.『傷寒辨證錄』10권(新華齋 간행본으로 남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20.『本草新編』10卷(겨우 淸華書室 分類書選에 보인다.), 21.『新增胎產秘書』2卷(이 책은 嘉慶 14년 善成堂藏本이다.)등등이다. 山陰縣志의 기록에 의거해 보면 1에서 4, 9에서 13, 15의 10種 저작은 이미 散失되었다. 오직 石室秘錄은 陳氏가 岐伯이 口授하고 張機, 華佗, 雷公이 評述했다고 假託했는데 아주 과장되고 虛誕하다. 이 책은 淸·康熙 25년(1686년) 간행되었다. 全書는 6卷이고 卷 1에서 5까지는 分病도 안했고 論脈도 안했고 論因도 아니고 正醫, 反醫, 內治, 外治 128法을 종합적으로 논술했고 方劑를 나누어 배열했다. 그러나 책 속에서 論說한 것이 일반醫學 논저와 不同하고 적지 않게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치법과 처방은 더욱 새로운 내용이 많다. 卷 6은 『傷寒雜病類證治』이다. 『石室秘錄』이 傅靑主의 遺著를 陳氏가 보충 정리해서 완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다."[3]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山陰縣志의 『內經素問尙論』이 『內經素問新編』으로 『外經微言』이 『外經微旨』로, 『臟腑精鑒』이 『臟腑精覽』으로, 『傷風指迷』가 『治傷指迷』로, 『外科洞天奧旨』가 『洞天奧旨』로, 『嬰孺證治』가 『嬰幼證治』로, 『瓊笈秘錄』이 『琉笈秘錄』으로 되어있으나 현존하지 않는 서적이 많아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山陰縣志에는 『梅花易數』가 더 있고 紹興醫學史略에는 『尙論新編』, 『辨證冰鑒』, 『傷寒辨證錄』, 『新增胎產秘書』가 더 있다.

陳士鐸 저작의 叢書總名을 『洞垣全書』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鄞縣 樓慶昌의 辨證錄跋文에 陳士鐸 書籍의 總名을 『洞垣全書』라 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辨證玉函』의 王之策序에서도 "陳子所輯『洞垣』秘笈尙富나 未能一一鋟行하니 其以是編爲嚆矢也可라" 하였으며 康熙刊本『辨證錄』 뒤에 붙어있는 『脈訣闡微』의 卷首에 직접 『洞垣全書脈訣闡微』라 하였다.[4] 山陰縣志에는 19종의 著述이 실려 있고, 紹興醫學史略에는 21종의 著述이 실려 있는데 현존하는 陳士鐸의 저작은 『外經微言』, 『脈訣闡微』, 『本草新編』, 『石室秘錄』, 『辨證玉函』, 『辨證奇聞』, 『辨證錄』, 『洞天奧旨』의 8종이 있다. 『辨證奇聞』은 山陰縣志와 紹興醫學 史略에도 이름이 없는데 이 책은 道光 3년(1823년) 太醫院 院使를 지낸 錢松이 『辨證錄』을 刪定하여 만든 책으로 보기도 하나 『辨證錄』 自序에 "奇聞"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Ⅲ. 陳士鐸의 著述에 대한 考察

3) 何時希, 上同.
4) 職延廣, 侯美王, 陳士鐸洞垣全書初考, 北京, 中華醫史雜志, 1996년, 10월, 제 26권, p. 2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 著述의 來源

陳士鐸은 평생 동안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嘉慶8年(1803년)의 山陰縣志에 19종류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乾隆 55년 庚戌(1790년) 그의 『洞天奧旨』의 跋文에서도 "由是閉戶著書하야 闡發醫理二十餘種이니 所著『素』, 『靈』, 『本草』, 『傷寒』, 『六氣』, 『外經微言』, 『石室秘錄』, 『辨證錄』, 『臟腑精鑒』, 『脈訣闡微』, 『辨證玉函』等書는 付梓行世하야 已歷有年所矣라(付梓: 출판하다, 발간하다. 年所: 연월·햇수·세월. 歷有年所: 긴 세월이 지나갔다.)"고 하였다.[5]

이상의 著書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石室秘錄』, 『辨證奇聞』, 『辨證錄』, 『本草新編』, 『外經微言』, 『辨證玉函』, 『洞天奧旨』, 『脈訣闡微』, 『辨證氷鑑』 등이며 그 중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氷鑑』은 사실 동일한 책으로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이미 散失된 著書들은 淸代 以來의 書目에 收錄된 바가 없었고 刻本이 있는지도 確認할 수가 없다. 그 中 『臟腑精鑑』은 『辨證錄』의 凡例에서 言及하였는데, 즉 "岐天師傳書甚富 而『外經』一編尤奇라 編中秘奧는 皆采之『外經』『精鑑』居多하니 非無本之學也(기백천사가 전해준 책이 아주 많지만 『外經』이 더욱 기이하다. 이 『辨證錄』중의 비밀스럽고 깊은 내용은 모두 『外經』과 『精鑑』에서 딴것이 아주 많으니 뿌리없는 학술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洞天奧旨』의 陳士鐸 自序에는 "鐸信師之深하야 退而著述하니 若『素問』 若『靈樞』 若『六氣新編』 若『辨證錄』은 俱已告竣하야 計八千編有奇니 亦可謂書之富焉이라"고 하였다. 그 外에도 陳氏는 『本草新編·凡例』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著書甚豊"이라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그의 많은 著書들이 널리 傳해지지 못하고 끝내 散失되어 버렸다.

陳士鐸이 著述한 이러한 책들은 과연 그 來源이 어디였을까? 그리고 成篇된 時間과 각 書籍들의 關係與否는 또 어떠한 것이었을까? 後世의 學者들은 이와 같이 많은 疑問을 提起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問題提起에는 다음과 같은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陳士鐸의 각 著書의 序와 凡例, 그리고 友人들이 쓴 序文에는 모두 岐伯天師에게서 學術을 傳受받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陳士鐸의 著作내에 "敬習"이나 "述"이란 用語를 많이 使用했다는 것인데,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陳士鐸의 『石室秘錄』과 『本草新編』에는 岐伯, 張機, 呂道人의 序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책에대한 신비감을 더해준다. 진짜로 이들이 의학이론을 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가탁했는지는 고증할 길이 없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두 이들의 명의를 가차해서 지은 것으로 단정을 하고 있다. 유장화는 "傅山이나 傅山의 後代, 또는 門人일 可能性이 크다"[6]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단정하기에 어렵다. 金以謀의 『石室秘錄』 序를 보면 "第指迷自呂祖하고 啓函自天師하며 辨難參訂自眞人하니 迹近怪異하야 或疑其說荒渺爲不可據矣라 乃吾三復斯篇한데 立方固奇 而立論甚正(단지 미혹을 지적해준 것은 여동빈이 하고 비밀을 열어준 것은 기백천사이며 분별하여 논란하고 참고하여 바로잡은 것은 광덕진인인 장중경으로부터 했다하여 흔적이 괴이한데 가까워 혹자들은 그 설이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을 한다. 그래서 내가 3번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처방이 진실로 기이하고 입론이 대단히 반듯하였다.)"라 하여 이 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序文에 例外없이 의학을 傳해 받았다는 것이 言及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陳士鐸의 著書들은 반드시 누구에게선가 傳受받은 바가 있음이 틀림없다.

둘째, 陳士鐸의 著書들을 보면 本人이 提示한 著述方式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때로는 "述"

5)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236.

6) 柳長華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1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라고 表現하였고, 때로는 "敬習"이라고 表現하였으며, 때로는 "著"라고도 表現하였다.

예를 들면 『石室秘錄』에는 "山陰陳士鐸遠公甫敬習"이라고 하였고, 『辨證錄』에는 "山陰陳士鐸敬之甫號遠公又號朱華子著述"이라고 하였으며, 『辨證奇聞』에는 "山陰陳士鐸遠公父原本 寧鄕文守江南紀氏敬述"이라고 하였고, 『外經微言』에는 "山陰陳士鐸號遠公又號朱華子述"이라고 하였으며, 『辨證玉函』에는 "山陰陳士鐸遠公甫敬習"이라고 하였고, 『洞天奧旨』에는 "山陰陳士鐸敬之甫號遠公著"라고 하였으며, 『脈訣闡微』에는 "山陰陳士鐸敬之甫別號遠公述"이라고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敬習"이란 것은 恭敬한 姿勢로 배우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 되고, "述"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整理하고 記錄했다는 뜻이 된다. 『洪武正韻』을 보면 "述은 續也며 譔也라 凡終人之事하고 纂人之言을 皆曰述"이라고 하였다. 陳士鐸 本人의 말에 의하면 그의 著書중의 상당부분이 異人의 傳受를 받은 것인 緣故로 "述"이라고 稱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辨證錄·自序』에서 그는 "鐸은 尼山之弟子也니 敢輕言著作乎아 聞二先生敎하야 亦述之而已矣니 何必諱其非仙哉리오 仙不必諱오 而必謂是書非述也면 得毋欺世以炫奇乎아(나는 공자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 감히 가볍게 저작을 말할 수 있는가 두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기술했을 뿐이니 하필 신선이 아님을 숨기리오. 신선은 숨길 필요도 없고 반드시 이 책을 기술이 아니라고 이른다면 세상을 속이고 기이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 『辨證錄·凡例』에서는 "是編皆岐伯天師 仲景張使君所口授 鐸敬述廣以傳世 實遵師誨 非敢自矜出奇"라고 하였으며, 『洞天奧旨·自序』에서는 "談醫用藥 無非本諸洞天之傳也 又慮證多方略 附祖父家傳 采古今驗方列於後"라고 하였고, 『洞天奧旨·凡例』에서는 또 "先大夫安期公生平頗好方術 遊蜀遇峨眉山羽士 傳有秘方 效驗如響 亦登此編"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陳士鐸의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니다. 따라서 陳士鐸의 著述은 한편으로는 異人 등의 傳授에서 來源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家傳에서 來源한 것이며, 나머지는 自身의 臨證經驗에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陳士鐸 著作의 傅青主와의 관련성

傅山은 명나라 萬曆 34年(1606년)에 태어나 淸나라 康熙23年(1684년)에 卒하여 79세를 살았으며 山西省 陽曲(지금의 太原市)사람이다. 原名은 鼎臣이고 字는 靑竹이며 또 字를 고쳐 靑主라고 했으며 또 다른 字는 公佗이고 號는 嗇廬 또는 石道人이라 했으며 公之佗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 술 마시기를 좋아했고 자칭 老蘗禪이라 했으며 명나라가 망한 후에 衣冠을 고쳐서 바꾸고는 號를 朱衣道人이라고 하였다. [7]

그는 經史에 두루 通하였고, 詩文과 書畵에도 能하였으며, 醫學도 또한 精通하였다. 明나라가 亡한 後에 隱居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고, 그의 著作 또한 世上에 傳해진 것이 드물었다. 따라서 傅氏의 著書는 대개가 民間에서 傳抄하여 내려 온 경우가 많다. 道光 年間에 이르러 비로소 『傅靑主女科』가 刊行되어 世上에 傳해졌는데, 이 책이 처음 刊行된 것은 道光 7年(1827년)이다. 張鳳翔의 序를 보면 "傅靑主先生有手著『女科』와 幷『産後』二冊하니 近得抄本於友人處라 故樂爲序而行之"라고 하였다. 道光 11年(1831년)에 祁爾誠은 重刊한 이 책의 序文에서 말하기를 "此書爲傅靑主先生手著라 …… 晉省抄本甚多나 然多秘而不傳이오 間有減去藥味하고 錯亂分量하야 彼此參證에 多不相符라 玆不揣冒昧하고 詳校而重刊之"라고 하였다. 傅氏의 著書는 政治的인 原因으로 말미암아 長期間 刊行이 되지 않았고, 民間에서만 많은 抄本들이 傳해졌을 따름이다.

이 후 同治 2年(1863년)에는 다시 『傅靑主男科』와 『傅靑主小兒科』가 刊行되었다. 王道平은 序에

7) 傅山撰, 郭芳注釋. 傅靑主醫學.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 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癸亥秋에 有邦定羅公이 持先生『男科』『小兒科』以相示어늘 平見而奇之하야 究其所由來하니 羅曰 道光初年에 余家刻印先生『女科』하고 是時에 平定州孫毓芝先生이 爲余家西席하야 由平定州携至舍也라하니라 余抄之하야 藏笥已四十年矣라가 今有鄕人生産에 胎衣不下하야 求方於余어늘 余搜『女科』而得此라 因子好『女科』일새 而特爲相示라 平受而讀之하고 讀而抄之하며 且欲板之"라고 하였다.

그런데 傅氏의 책이 陳氏의 책보다 後에 出刊되었다고 하여 疑義를 가진 後世 學者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陸定圃는 『冷廬醫話』에서 "『傅氏女科』書는 道光丁亥張丹崖鳳翔序刊하고 近復刊入潘氏海山『仙館叢書』이라 王孟英이 謂文理粗鄙하고 撰襲甚多하여 誤信刊行하야 玷辱青主라 余觀此書컨대 措辭冗衍하고 立方板實하며 說理亦無獨得之處라 …… 成此書者는 當是陳遠公之流 而其學은 更不如遠公이니 乃『女科』書之最下者"[8]라고 하였고, 謝誦穆은 『中醫僞書考』에서 "或云『傅青主女科』係從陳敬之『辨證錄』中錄出"이라고 하였다.

傅山 著書의 眞僞問題는 近世에 와서는 더 이상 論爭의 對象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建國以來로 山西省博物館에서 傅山의 여러 가지 醫學著作의 遺墨과 傳抄本을 發見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 『大小諸證方論』, 『松僑老人傅山稿』는 文物專門家의 鑑定을 通하여 傅山의 著作임이 틀림없다고 確證이 되었다. 傅山의 友人인 顧炎武는 『大小諸證方論』의 序文을 지었는데, 그는 序文에서 "予友傅青主先生은 學問淵博하고 精實純萃而又隱於醫라 手著女科一卷 小兒科一卷 男婦雜症一卷하니 繙閱其書컨대 分文別類하야 無症不備하고 無方不全하니 治一病에 必發明受病之因하고 用一藥에 必指示用藥之故하야 曲折詳盡하니 誠衛生之善道요 救死之良方也"라고 하였다. 이 序文은 康熙 12年(1673년)에 지은 것이다. 顧炎武는 字가 寧人인데, 學者들은 그를 亭林先生이라고 불렀으며, 江蘇 昆山 사람이다. 그는 淸나라 滿洲族의 統治에 不滿을 가졌기에 晩年에 山西에 隱居하면서 傅山과 親하게 지냈었다.

『大小諸證方論』중의 小兒科 方論部分은 世上에 刊行된 『傅青主小兒科』와 內容이 同一하며, 同時에 陳士鐸이 지은 『石室秘錄』중의 小兒科의 部分內容과도 基本的으로 一致한다. 이는 陳士鐸이 傅山에게서 이 부분 內容을 取하였음을 說明해 주고 있다.

山西省博物館에는 『松僑老人傅山稿』의 醫學手稿 一部가 收藏되어 있는데, 다만 "調經"부분의 內容만 남아 있다. 이 部分의 內容은 지금의 『傅青主女科』중의 "調經"부분의 內容, 그리고 陳士鐸의 『辨證奇聞』 및 『辨證錄』중의 "調經"부분의 內容과 基本的으로 같은 것이다. 이 외에 『大小諸證方論』중의 雜症方論의 內容도 『石室秘錄』중의 일부 內容과 서로 같은 部分이 많이 있다.

陳士鐸은 『石室秘錄』과 『洞天奧旨』등 著書의 自序에서 자기가 北京에 2回 간 적이 있었고, 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다고 言及하였다. 陳士鐸이 北京에 갔던 時間에 관해서는 『洞天奧旨』와 『辨證錄』의 序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康熙 丁卯年(康熙 26年, 1687年)과 康熙 癸酉年(康熙 32年, 1693年)인데, 이는 傅山이 北京에 있었던 것과 다른 時間帶이다. 序文을 보면 丁卯年(1687년) 가을에 燕市에서 岐伯天師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傅青主가 죽은 지 이미 3년이 지난 이후가 된다.

중국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陳士鐸이 만났다는 岐伯天師가 傅山일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石室秘錄』중의 소아과 부분이 『傅青主小兒科』의 내용과 같은 부분이 많고 『辨證奇聞』, 『辨證錄』중의 調經部分이 『傅青註女科』중의 調經部分과 비슷한 내용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柳長華는 "陳士鐸이 丁卯年(1687년)에 만난 岐伯天師는 아마 傅山을 隱稱하는 것일 것이다. 그

8) 陳定圃. 冷廬醫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 69~7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런데 傅山은 이 때에 이미 故人이 되었는데, 이 時間에 대한 記錄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傅山은 康熙 戊午年 즉 康熙 17年(1678年)에 北京으로 불려갔다가 康熙 18年에 故鄕으로 돌아왔으며, 康熙 23年(1684年)에 卒하였다. 陳氏의 序文에 記錄된 時間帶가 과연 正確한 것인지, 혹시 淸 朝廷의 問難을 避하기 爲하여 故意的으로 달리 記錄한 것은 아닌지 하는 問題는 지금으로서는 이미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陳士鐸이 스스로 스승님의 傳受가 있었다고 밝힌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陳士鐸 著書의 內容과 文體를 살펴보고, 두 사람이 生活한 時間帶를 參照하여 보면 陳氏가 確實히 傅山의 傳授를 받은 事實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陳士鐸이 언제 어디에서 傅山과 만났고, 또 陳士鐸의 전체 著書 중에 傅山이 傳授한 內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9]라고 하여 傅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傅山은 1684년에 이 세상을 떠났고 陳士鐸이 북경에 가서 異人을 만난 시간은 1687년으로 異人은 결코 傅山이 될 수 없다.

둘째, 陳士鐸이 傅山에게서 醫學을 전수받았다면 현존하는 『傅靑主男科』, 『傅靑主女科』, 『傅靑主産後編』의 내용과 모든 면에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데 단지 『女科』의 調經部分과 기타 한두 곳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여 곧장 陳士鐸이 傅山에게서 醫學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렇다면 그 一致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음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傅靑主는 "仙醫"라는 贊名이 있을 정도로 陳士鐸 못지않게 신비한 인물이다. 인간의 著述세계에서 創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저작의 세계는 앞사람의 저작의 바탕 위에서, 또는 전수받은 바탕 위에서 새로운 著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傅靑主에게 의술을 전해준 사람과 陳士鐸에게 의술을 전해준 사람이 同一한 사람이거나 연관성이 많은 사람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을 보면 一字一字가 완전히 同一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기술해 나가는 것으로 보더라도 두 사람의 뿌리가 同一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짙어진다.

3) 辨證奇聞과 辨證錄

기존의 陳士鐸의 著書를 通하여 각 著書들의 關係를 한번 살펴보면 『外經微言』은 醫學理論을 論한 책이고, 『本草新編』은 處方과 用藥을 論한 책이며, 『洞天奧旨』는 外科專門書에 屬하고, 『脈訣闡微』는 脈法을 論한 책이며, 『石室秘錄』,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氷鑑』, 『辨證玉函』은 모두 雜病 治療에 關한 책이다. 그 중 『辨證奇聞』과 『辨證錄』 그리고 『辨證氷鑑』은 책이름만 다를 뿐 실지로는 同一한 書籍이다. 『辨證氷鑑』은 가장 늦게 出版된 책으로 光緖 年間에 처음으로 刻本을 만들었는데, 그 內容은 『辨證錄』의 내용과 完全히 一致하며, 이름이 다른 것은 책을 傳한 後人이 書名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辨證奇聞』과 『辨證錄』은 文字상의 差異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內容이나 構成은 完全히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辨證錄』은 世上에 가장 널리 流通되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辨證奇聞』은 世上에 保存된 것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著書의 關係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아래에 이 두 著書를 서로 비교하고 考證하여 얻은 結果를 紹介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는 『辨證錄』에는 있는데 『辨證奇聞』에는 없는 內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辨證錄』은 『辨證奇聞』보다 近 20萬 字나 더 많아졌는데, 이

9) 柳長華主編. 상게서. p. 114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은 每證의 뒤에 다시 處方을 하나씩 附錄한 것과 大量의 敍述內容을 追加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卷一傷寒門〉을 보면 『辨證奇聞』은 "冬月傷寒으로 發熱頭痛하며 汗出口渴을 因謂太陽證이나 誰知太陽已趨陽明고 若徒用乾葛湯治陽明이면 則頭痛不能除하고 若徒用麻黃湯治太陽이면 則汗不能止하며 口渴不能解하고 勢必変症多端이니 法宜正治陽明하고 兼治少陽"이라고 論하였는데, 『辨證錄』은 "冬月傷寒으로 發熱頭痛하며 汗出口渴을 人以爲太陽之症也나 誰知太陽已趨入陽明乎아 若用乾葛湯以治陽明하면 則頭痛之症不能除하고 若徒用麻黃湯以治太陽하면 則汗出不能止하며 口渴不能解하야 勢必変症多端하야 輕変爲重이니 法宜正治陽明而兼治少陽也"라고 論하였다. 또 〈中風門〉을 보면 『辨證奇聞』은 "入室向火하야 邊熱邊寒하야 遂致左頰出汗한데 偶出戶하야 爲賊風所襲하면 覺右頰拘急하고 口喎於右를 人謂中風이나 孰知向火하야 火逼熱并一邊也라 惟和氣血하고 佐解火하면 則火平하고 喎斜正"이라고 論하였는데, 『辨證錄』은 "人有入室向火하야 一邊熱一邊寒하야 遂致左頰出汗한데 偶爾出戶하야 爲賊風所襲하면 覺右頰拘急하고 口喎於右를 人以爲中風之症也나 而余以爲非中風也오 乃向火而火逼其熱以并於一邊耳라 若作風治 而中實無風하니 和其氣血하고 而佐之以解火之味면 則火平而喎斜自正也"라고 論하였다. 書籍이 流傳되는 慣例를 보면 대개 먼저 나온 책이 簡略하고 뒤에 나온 책이 繁詳한 편인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글의 表現方式을 고친 것은 以後에 나타난 通俗本의 形式과 아주 恰似하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辨證錄』이 忌諱를 避하기 위하여 일부 內容을 削除한 部分이다. 이는 康熙 年間 以後로 文字獄이 크게 行하여지므로 하여 『辨證錄』을 出刊한 者가 淸나라 朝廷의 忌諱를 避하기 爲하여 『辨證奇聞』중의 "胡虜夷狄賊寇"를 言及한 內容과 民心을 煽動하는 部類의 文字들을 모두 削除해 버린 것이다. 이 部分에 屬한 內容들이 아주 많은데 몇 가지 例만 들어 說明하기로 하겠다. 예를 들면 『辨證奇聞·傷寒門』에 "蓋陽明多氣多血 邪足恣其凶橫 如賊入通都大邑 其掠掠之勢 較窮鄕僻壤自不同 所得之物 足以供其跳梁 故邪入陽明 挾其府之氣血 炎氛烈焰 往往然也 豈可以輕小之劑 望其解散 必須大劑凉藥 始可祛除其橫暴"라고 하였는데, 『辨證錄』에서는 이를 "蓋陽明多氣多血之府 邪入其中 正足以恣其凶橫 而挾其府之氣血 爲炎氛烈焰者 往往然也 故必須用大劑凉藥 始可祛除其橫暴也"라고 變更하였다. 그 외에도 本 篇중의 "勢必執槍刀思御侮 此時而能登高号召 勸諭高呼 賊知內有防護 外恐有內應 自易解散"이라든지, "率其乞食戚黨"이라든지, "可以御敵逐寇"이라든지, 『目痛門』의 "有不復國於須臾 定亂於頃刻"등등의 이런 部類의 大量의 文字들이 모두 削除되었다.

柳長華는 이처럼 두 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保存되어있는 『辨證奇聞』이 原本이고 『辨證錄』은 後人의 削除와 修正을 거친 책이라고 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고쳐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고증하기 어렵지만 일찌기 雍正 2年(1724년)에 廣東巡撫 年希堯가 『辨證錄』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에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10] 그러나 논자의 의견으로는 『辨證奇聞』이 『辨證錄』보다 앞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後人에 의해서 修正되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年希堯는 醫家가 아닌 官吏로써 의서를 수정할 정도의 의학지식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는 序文에서 본문의 개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둘째, 『洞天奧旨』의 自序에 보면 陳士鐸 본인이 『辨證錄』을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辨證錄』의 自序에서 "書非炫奇나 而仍以奇聞名者는 以鐸聞二先生之敎가 不過五閱月耳나 數十萬言을 盡記憶無忘하고 述之成中失일새라(책이 기이함을 자랑함이 아니나 『奇聞』이라고

10) 柳長華主編, 상게서, p. 114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름 지은 것은 내가 두 선생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 5개월에 불과하나 수십만 글자를 다 기억하여 잊지 않고 기술하여 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이로 보면 『辨證錄』의 自序는 실지 『辨證奇聞』의 自序이고 이를 덧붙여 설명하고 幼科의 6條를 증보 하여 陳士鐸 스스로 『辨證錄』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外에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問題가 있다. 『辨證奇聞』卷下의 題名은 기타의 여러 著書들과는 달리 "山陰陳士鐸遠公父原本 寧鄕文守江南紀氏敬述"이라 되어 있다. 『辨證奇聞』의 歐陽晟과 劉浩의 序文에서는 陳士鐸이 醫術을 文南紀에게 傳授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그 중 歐陽晟은 序에는 "余友南紀文君 恒產不及常人 常懷利物 刻『奇效醫術』一書事竣 今又取『辨證奇聞』而付之梓 夫『辨證奇聞』山陰陳遠公所著 …… 今幷傳于南紀一人 是此書之幸"이라고 하였고, 劉浩의 序에는 "文子南紀與予同鄕 亦業是術 獨能知是書之精粗本末 慨然解囊 將付之梓 斯眞有識之人也"라고 하였다. 文南紀는 浙江 寧鄕 사람인데, 여기에서 "敬述"이라 하였으니, 『辨證奇聞』은 文南紀의 訂正을 거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4) 陳士鐸 著述의 선후와 序文

陳氏의 여러 著書의 成篇 時間에 관하여서는 다만 각 著書의 序文을 通하여 大略的인 狀況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陳士鐸이 스스로 康熙 丁卯年 가을에 燕市에서 岐伯天師를 만났었고, 그 後로 隱退하여 著述을 始作했다 하였으니 이 때 陳氏의 나이는 이미 60歲 前後가 되었다. 『本草新編』의 康熙 己巳年(1689년) 呂道人의 序文을 보면 "著『內經』『六氣』之書甫竣 復著『本草』"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本草新編』은 『內經素問尙論』과 『六氣新編』보다 뒤에 나온 책임을 알 수가 있다.

『本草新編』의 康熙 30年 金以謀의 序를 보면 "陳子遠公 所著『石室秘錄』 皆傳自異人 而于靑囊肘後 闡發尤多 故拔盲起疲 捷如響應 余旣序之 梓以行世矣 無何 復郵『本草新編』"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石室秘錄』이 『本草新編』보다 일찍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다.

『本草新編』凡例를 보면 "鐸晩年逢異人於燕市 傳書甚多 著述頗豊 皆發明『靈』『素』秘奧 絶不拾世間淺濊"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本草新編』이 陳氏 晩年의 著作임을 알 수가 있다.

『洞天奧旨』의 天留客의 序를 보면 "先出『秘錄』後出『奇聞』"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石室秘錄』이 『辨證奇聞』보다 먼저 著述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洞天奧旨』는 陳士鐸 晩年의 또 하나의 著作이다. 그는 이 책의 自序에서 "鐸信師之深 退而著述若『素問』 若『靈樞』 若『六氣新編』 若『辨證錄』 俱已告竣 計八千編有奇 亦可謂書之富焉……因而再著玆編 名曰『洞天奧旨』"라고 하였다.

以上의 考證을 通하여 보면 陳士鐸의 現存의 著書들의 成篇 順序는 大體的으로 『石室秘錄』이 먼저이고, 다음이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玉函』, 『洞天奧旨』, 『脈訣闡微』, 『本草新編』, 『外經微言』의 順이라 할 수 있다.

陳士鐸의 自序와 凡例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現存의 여러 著書들 중에 陳士鐸의 自序가 3篇이 보이는데, 각각 『辨證錄』(題於大雅堂이라 하였고 지은 時間은 없음)과 『洞天奧旨』(康熙甲戌 仲冬 題於燕市라 함), 鬼眞君脈訣序(題于文筆峯之小邨啷라하였다.)가 있다.

陳士鐸의 自序 외에 다른 사람이 쓴 序文으로서 岐伯天師나 張機 또는 呂道人의 이름을 假借하여 나타난 것이 있는데, 각각 『石室秘錄』에 3篇 보이고, 『本草新編』에 3篇이 보인다.

또 友人이나 故鄕사람이 지은 序文이 여러 篇 나타났는데, 例를 들면 金以謀(『石室秘錄』과 『本草新編』에 있음)와 陶式玉(『洞天奧旨』에 있음) 그리고 王之策(『辨證玉函』에 있음) 등이 지은 것들이며, 나머지 序文은 모두 책을 刊行한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 外에 凡例 3篇이 있는데 모두 "陳士鐸識"라고 提示되어 있다. 각각 『本草新編·凡例十六則』에 "山陰陳士鐸遠公別號朱華子識"라고 題名한 것과, 『辨證錄·凡例』에 "大雅堂主人遠公識"이라고 題名한 것과, 『洞天奧旨·凡例』에 "大雅堂主人遠公識"이라고 題名한 것들이다.

Ⅳ. 結 論

陳士鐸의 生涯와 著述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士鐸은 대략 1627년~1707년 사이에 걸쳐 80여세를 살았으며 60세가 지나 1687년과 1693년 두 차례에 걸쳐 북경에 가서 岐伯天師와 仲景張使君을 만나 醫學知識을 전수받아 20여권의 의서를 著述하였다.

2. 陳士鐸 저작의 叢書名稱을 『洞垣全書』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서적으로는 『外經微言』, 『脈訣闡微』, 『本草新編』, 『石室秘錄』, 『辨證玉函』, 『辨證奇聞』, 『辨證錄』, 『洞天奧旨』의 8종이 있다.

3. 陳士鐸은 岐伯, 張機, 呂道人(여동빈)등에게 醫學을 전수받았다고 하였는데 그의 모든 著述에는 例外없이 "述", "敬習"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自作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醫學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中國의 여러 학자들은 陳士鐸에게 의술을 전해준 스승을 傅山(字 靑主)으로 보고 있으나 傅靑主는 1684년에 세상을 떠났고 陳氏가 二先生을 만난 것은 1687년이므로 傅山은 결코 아니다.

5. 傅山의 著書의 내용이 陳士鐸의 著作속에 몇 군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傅山의 醫學스승과 陳士鐸의 醫學스승이 동일인이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6. 『辨證奇聞』과 『辨證錄』은 문장의 多寡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辨證奇聞』이 陳氏의 原書이고 『辨證錄』은 後人이 增補한 것이라는 설과, 『辨證錄』이 陳氏의 原本이고 『辨證奇聞』은 錢松의 刪定本이라는 說이 있으나 『辨證錄』의 序文과 『洞天奧旨』의 序文 등으로 볼 때 둘 다 陳氏의 著述이고 『辨證奇聞』이 『辨證錄』보다 앞서 著述된 것으로 추정된다.

7. 현존하는 陳氏의 著述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石室秘錄』이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玉函』, 『洞天奧旨』, 『脈訣闡微』, 『本草新編』, 『外經微言』의 순서로 成編된 듯 하다.

8. 현존하는 陳氏의 自序는 『辨證錄』, 『洞天奧旨』, 『鬼眞君脈訣』의 3개인데, 『辨證錄』 序는 실제 『辨證奇聞』 序인 듯 하다.

參 考 文 獻

1. 傅山撰 郭芳注釋 傅靑主醫學 北京 學苑出版社. 2002.
2. 柳長華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陳定圃 冷廬醫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5.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6. 職延廣 侯美王 陳士鐸洞垣全書初考 北京 中華醫史雜志. 1996.
7.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